

삼성, LGD의 LCD패널 중국투자승인

'09년 정부는 12월 24일 제2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정운찬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기술의 중국투자 수출신청서를 심의하고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신청한 TFT-LCD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과 관련, 중국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신청기업의 현지경영 필요성 및 韓·中간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으로의 TFT-LCD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하였다.

회사	총투자비(억불)	자본금(억불)	지분	세대	기판크기	위치
LGD	40	13	70%	8	2200×2500mm	광동성 광저우시
삼성	30	10	70%	7.5	1950×2250mm	강소성 소주시
계	70	23		-	-	-

삼성, LGD 중국에 투자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對중국 LCD 투자와 병행하여 11세대 LCD 및 AM OLED를 비롯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약 28조원('09~'13년)을 국내에 투자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 심의건에 대해서는, 그 간의 기술변화 및 기술수준향상 등을 감안하여 現 40개 기술에서 49개 기술로 확대하였다.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기술을 선도 하고 기술의 선점이 가능한 기술로서 정보통신 5개·조선 1개·생명공학(바이오나노) 3개 등 총 9개이다.

변경된 국가핵심기술은 現국가핵심기술 지정 이후 기술적 진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유사기술 등을 통합 조정이 필요한 기술로서, 전기전자 5개·조선 3개 등 총 8개 기술이다. 해제된 국가핵심기술은 신규 투자가 없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PDP 패널 셀 구조기술" 1개이다.

기술이전과 해외투자 양립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첨단 산업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미래 기술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첨단기술의 해

【 중국내 8세대급 신규라인 투자 계획 】

국가	회사	세대	위치		가동	Capa
			省	市		
한국(2)	삼성	7.5	강소성	소주	'11.3Q	100K
	LGD	8	광둥성	광저우	'12.1Q	60K+60K
일본(1)	Sharp	8	강소성	남경	'12.4Q	90K
중국(3)	BOE	8	하북성	북경	'11.4Q	90K
	IVO	8	강소성	곤산	'10.3Q	90K
	TCL	8	광둥성	심천	'11.4Q	90K
대만(2)	AUO	8	광둥성	심천	'12.4Q	60K
	CMO	8	광둥성	불산	'11.3Q	90K

의 이전이 글로벌 트렌드인 기업의 해외투자과 양립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투자규모 70억불

LCD의 중국투자 개요를 살펴보면, LGD·삼성은 8세대급 LCD 패널 공장을 각각 광둥성과 강소성에 설립할 계획이며, 총 투자규모는 70억불이다.

'09.11월 현재, 총 8개社가 중국내에 8세대급 LCD 패널 투자를 추진중이다. 중국 TV생산업체인 TCL이 8세대 투자계획을 발표(11.16일)했다. 중국내 LCD 투자기업이 당초 7개社 → 8개社로 확대된다.

중국 省정부간 또는 省内에서 패널업체 투자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삼성·LGD가 진출하는 강소성과 광둥성에 3~4개 업체가 투자 경쟁중이다.

중국 중앙정부는 LCD 패널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省정부의 투자계획을 종합 조정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省정부의 일부 투자유치 계획은 유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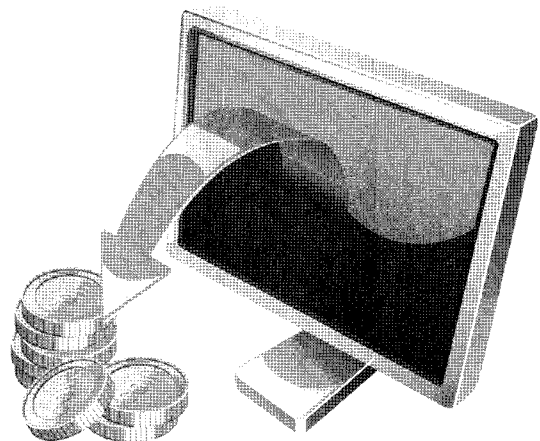
중국Local업체인 BOE, IVO는 승인되어 既착공되었다. 대만정부는 '10년초에 디스플레이 중국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발표 예정이며, AUO·CMO는 정부 승인이 나는 대로 중국투자 예정이다.

중국시장 선점효과

긍정적 측면에서 중국시장 선점효과가 있다. Local LCD TV업체 등과의 제휴강화 및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로 세계시장 지배력 유지가 가능하다.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0%이상이나, 중국시장 점유율은 35% 수준으로서, 중국진출을 통해 중국 Local TV업체와 전략적으로 제휴를 강화하여 중국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급망(Supply Chain) 강화, 납기단축, 물류비용 절감의 효과도 발생한다.

국산장비 수출효과를 들 수 있다. 국내 LCD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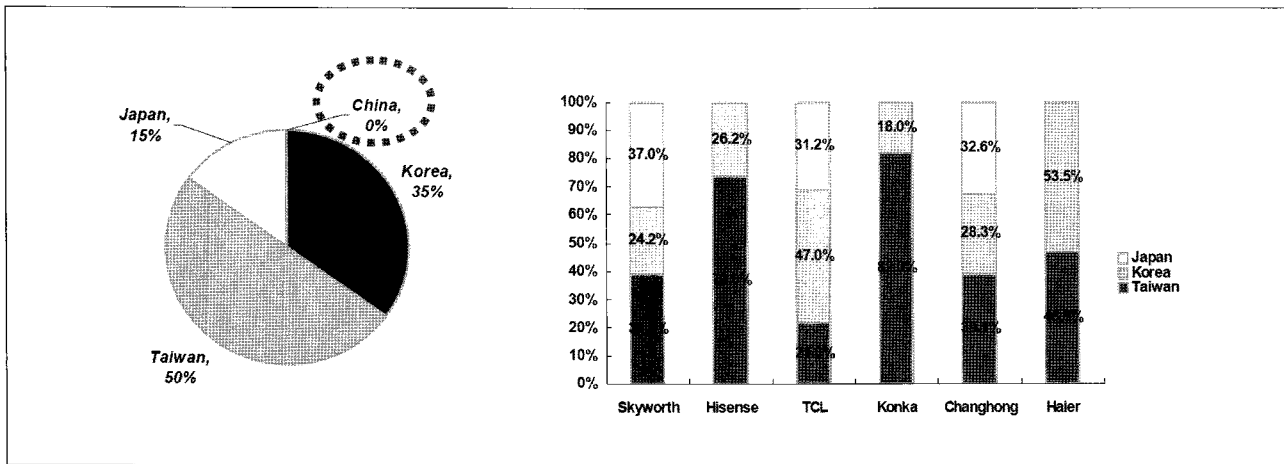
【 중국 LCD TV 시장 국가별 점유율(생산액 기준, %) 】

구분	2008				합계	2009	
	1Q	2Q	3Q	4Q		1Q	2Q
한국	21.1	19.3	17.0	8.6	16.1	8.3	11.6
일본	24.5	29.4	29.1	16.4	24.7	16.0	11.7
중국	48.2	44.8	49.1	71.0	53.9	72.6	73.2
기타	0.2	0.2	0.2	0.2	0.2	0.2	0.4

【 대형 LCD 패널 시장 국가별 점유율(생산액 기준, %) 】

구분	2008				합계	2009		
	1Q	2Q	3Q	4Q		1Q	2Q	3Q
한국	42.8	42.9	46.4	55.5	45.8	54.7	52.2	52.1
대만	42.4	42.0	39.4	31.2	39.7	34.2	37.3	37.5
일본	10.8	11.4	11.6	11.4	11.3	9.3	7.6	7.6
중국	3.9	3.7	2.6	1.9	3.2	1.8	2.9	2.8

【 중국 Local LCD TV업체의 패널 공급선(생산액 기준, %) 】



생산라인의 경우 국산화 비율이 60% 수준으로서 삼성·LGD의 중국투자를 계기로 중소 장비기업의 수출이 크게 늘어 중견 수출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하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 LCD 패널 시장의 공급과

잉이다. 중국 및 해외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에 투자할 경우, '12년에 8세대급 LCD 패널의 신규 생산 능력은 연간 768만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40인치급 LCD TV 61백만대 생산물량)이다.

공급과잉 우려

중국의 LCD TV 수요는 '12년 4,100만대~4,900만대로 전망되어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문 조사기관은 전망한다.

둘째, 중국의 LCD 기술경쟁력 강화이다. TV용 LCD 패널 생산국으로 전환 계기를 제공한다. 중국은 현재 소형 LCD 패널을 생산하는 5세대급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TV용 LCD 패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8세대 패널공장 보유는 (韓) 삼성·LGD, (日) 샤프, (臺) AUO·CMO(건설중)이다. 8세대 LCD 패

널 투자를 계기로 중국은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는 첨단 생산설비를 보유하게 된다. 해외에 LCD 패널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이 강화된다. LCD 패널 기술은 태양 박막전지, AM OLED·Flexible Display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OLED 조명 등에 응용이 가능하여 차세대 기술 분야의 추격(Catch-Up)을 촉진한다.

중국 LCD TV 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된다. 삼성·LGD의 저렴한고 우수한 LCD 패널 공급은 중국 TV 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더욱 가속화 예상된다.

【 LCD 패널 시장규모(억불) 】

	'07	'08	'09	'10	'11	'12
전 체	911	920	700	844	922	970
TV	343	382	315	364	394	408
모니터	242	196	125	143	146	144
노트북	122	125	84	118	133	145
중소형	204	216	176	219	249	273

【 우리나라 LCD 패널의 국가별 수출 동향 】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금 액	1,239	4,684	12,212	16,655	18,245	25,824
증감률	76.2	278.0	160.7	36.4	9.6	41.5
국가별 수출액 비 중	중국 31.4%	일본 30.4%	일본 25.3%	중국 34.6%	중국 37.4%	중국 53.6%
	독일 20.8%	독일 16.6%	중국 22.2%	멕시코 14.3%	멕시코 19.3%	멕시코 13.0%
	홍콩 10.6%	중국 16.2%	멕시코 9.0%	일본 11.0%	슬로바키아 9.1%	슬로바키아 7.8%
	영국 9.3%	홍콩 7.7%	독일 5.8%	미국 7.9%	일본 5.6%	폴란드 6.8%
	대만 5.3%	미국 5.9%	홍콩 5.1%	스페인 4.3%	스페인 5.4%	일본 3.0%
	프랑스 5.2%	대만 4.7%	미국 4.8%	슬로바키아 4.2%	말레이시아 3.0%	미국 2.7%
	일본 5.1%	오스트리아 3.6%	폴란드 4.4%	폴란드 2.7%	홍콩 2.5%	말레이시아 2.6%